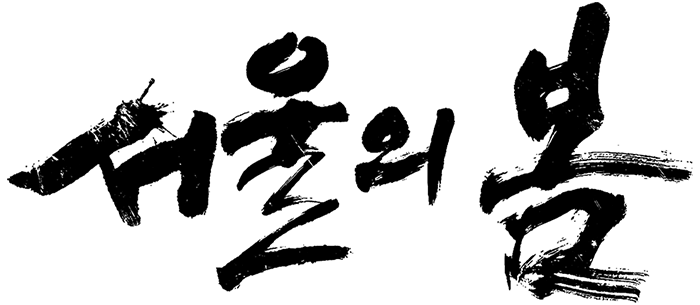
****

**12.12 군사반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변신!**

**탐욕의 화신이자, 권력욕 그 자체!**

**황정민 캐릭터 스틸 공개!**

영화 <서울의 봄>이 극중 보안사령관 전두광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황정민의 스틸을 공개했다.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반란을 주도한 인물로 변신한 황정민의 군복 입은 모습이 눈길을 끈다.

[감독: 김성수 | 제공/배급: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| 제작: ㈜하이브미디어코프]

**김성수 감독 “전두광은 욕망이 극대화된 탐욕의 화신으로 연출”**

**“우두머리 기질과 권모술수, 허세와 불안까지**

**캐릭터의 복합적인 면을 표현할 배우는 황정민이 유일”**

**늘 자신만의 캐릭터 해석과 강렬한 에너지를 표현해 내는 황정민**

**절대 권력의 빈자리를 노리는 보안사령관이 되다!**

****

**<서울의 봄>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.** 매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과 흡입력으로 관객들의 신뢰를 얻어온 배우 황정민이 <서울의 봄>에서 절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안사령관 전두광을 맡아 어느 때보다 강렬한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.

공개된 스틸은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앞둔 순간과 12.12 군사반란 당일 밤 등을 보여준다.

극 중 전두광은 10.26 사건의 배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게 된 후, 권력 찬탈을 위해 군내 사조직을 동원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캐릭터다. 10.26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령관으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틀어쥔 채 거침없이 군사반란을 주도하며, 권력을 향한 탐욕을 드러낸다. 수도 서울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(정우성)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숨 막히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.

<서울의 봄>의 김성수 감독은 **“전두광이라는 캐릭터는 권력욕이 극대화된 탐욕의 화신으로 연출했다. 군사반란의 전 과정에서 사조직을 이끌고 온갖 권모술수로 자신의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인물이다.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단선적인 모습 뿐 아니라 집요함과 허세, 불안까지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. 이런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황정민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”**라고 말하며 황정민이 선보일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.

황정민은 **“처음에는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부담감도 있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의 연기욕심을 자극하는 캐릭터이기도 했다”**라며 **“김성수 감독으로부터 ‘내가 연기할 캐릭터는 이 영화의 설정에 맞게 극화된 캐릭터’라는 말을 듣고 시나리오 상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. 관객을 영화 속으로 불러들이고 이야기 흐름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우의 역할이고 그것에 충실하려 노력했다”**고 <서울의 봄>에 출연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.

이어 **“출연을 결심한 이후로는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낼 만큼 이 캐릭터를 제대로 연기해내고 싶었다”**라고 캐릭터를 연기할 당시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.

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2.12 군사반란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<서울의 봄>은 오는 11월 22일 개봉해 긴박했던 그날 밤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이다.

**INFORMATION**

제목: 서울의 봄

영제: 12.12: THE DAY

감독: 김성수

출연: 황정민, 정우성, 이성민, 박해준, 김성균 외

제공/배급: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

제작: ㈜하이브미디어코프

러닝타임: 141분

관람등급: 12세 이상 관람가

개봉: 2023년 11월 22일

**영화<서울의 봄>에 대한 문의는**

**앤드크레딧&credit 02-543-19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**